로컬뉴스

익산소방서, 선거 안전관리 총력

익산소방서(서장 강원석)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안전한 가운데 실시될 수 있도록 투·개표소 사전점검과 특별경계근무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30일까지 익산 지역 투·개표소 116개소(개표소 1, 투표소 86, 사전투표소 29)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소화기 비치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복도·계단 등 피난장애물 설치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하고, 투·개표소 시설 관계자에 대하여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시 초기 대응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사전선거일과 선거 전일인 7일과 12일에도 투표소 안전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선거당일인 13일은 개표소인 익산실내체육관에 소방차를 전진배치하여 개표 종료시까지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 등 각종 사고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이마트 희망나눔 협약체결

군산시는 이마트 군산점(점장 고대원)과 지역사회 공헌프로그램인 '희망나눔 프로젝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6일 체결했다.

희망나눔 프로젝트는 이마트가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희망나눔 테마에 맞춰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1년간 200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희망마을 가꾸기, 그림대회, 바자회, 김장나눔 등 다양한 내용의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고대원 이마트 군산지점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서 TV쇼 진품명품 출장감정

오는 19일 고미술품 감정 프로그램인 KBS1 'TV쇼 진품명품' 출장감정 녹화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진행된다.

이번 출장감정 대상품목은 고서화, 고서, 도자기, 민속품 등 4종류이며 개그맨 김종국씨의 진행으로 사전접수한 의뢰품에 대해 전문위원이 무료로 개별 감정을 실시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TV쇼 진품명품 촬영장소 제공으로 근대문화도시 군산 및 근대역사박물관을 전국에 알리는 한편, 일반 시민들에게는 소장하고 있는 고미술품의 진위 여부와 가치 정도를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중국 위해이환 공예품 유한공사'

주얼리산단 복귀기업 선정

최근 익산주얼리단지로 투자를 결정한 '중국위해이환공예품유한공사(대표 최인수)'가 10번째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됐다.

국내복귀기업 선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정하는 제도이다.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면 각종 세제 감면(법인세·소득세, 관세 감면, 지방세)과 보조금(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해외공장에 대한 청산·양도 등 절차이행시 청산비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

2006년 중국으로 진출했던 중국위해이환공예품은 중국의 경영환경 변화로 지난해 5월 전라북도와 익산시와 투자협약체결을 했으며, 앞으로 중·고가의 주얼리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최근 세계경기의 장기간 침체로 중국에 진출한 많은 주얼리기업들이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 투자결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투자가 이루어져 향후 주얼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인수 대표는 "익산은 전국최대규모의 도금시설과 향후 주얼리산업 미래를 이끌고 갈 R&D센터, 협력업체 기반을 갖춘 주얼리집적산업센터 등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향후 주얼리 산업의 다변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웅재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세계경기여파로 많은 주얼리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익산투자를 결정한 최 대표에게 감사드린다. 주얼리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시민문화회관 등 방치 유효건물 이용 학교밖 학생들 위한 공간 마련 필요"

군산시민문화회관 등 방치되고 있는 유휴건물을 활용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군산경찰은 학교 밖 학생들의 선도 및 계도를 위해 학교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학교 밖을 떠도는 학생들과 주로 SNS를 통한 소통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과 직접 대화의 장이 필요할 경우 마땅한 장소가 없어 수송공원 등에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처럼 군산시 관내에는 학생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이는 학교전담반 경찰관들의 고민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학생들의 고민해결과 학교폭력 방지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전담반이 경찰서 4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경찰서라는 특수성이 더해져 학생들은 출입을 꺼리고 있다.

이에 3년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시민문화회관과 지난해 신청사로 이전하고 남겨진 문화파출소 건물을 청소년 쉼터 공간으로 조성해 학교 밖 학생들에게 상담과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의견이다.

여기에 청소년들의 상담과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송풍동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관련기관도 한곳으로 모아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경찰관과 상담전문가 한곳에 상주해 청소년들이 편하게 드나들며 치료와 상담,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가능한 장소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청소년 전문가는 "관내 청소년 상담소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 눈에 잘 띄는 장소에 학생들이 편하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방치 된 건물들을 활용해 일탈 학생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 준다면 학생들과 어른들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밖 학생들에게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들에게는 쉽고 편하게 기댈 곳, 호소할 곳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소방서, 성산면서 '119안전복지 서비스' 행사 개최

군산소방서(서장 박진선)는 5일 군산시 성산면에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운영관련 현판식 및 '119안전복지 서비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마을주민, 자원봉사단체, 한전 등 관계기관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군산소방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화재 취약지역인 농촌 거주 고령자들이 안심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 가정 및 홀몸 노인 가정에 주택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120대)와 단독감지기(120개)를 설치 보급했다.

또 가스 및 전기 시설의 안전점검, 구급팀의 마을주민 건강체크, 홀몸 노인 가정 기초 집수리 등 마을주민들의 눈높이 생활밀착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안전시설 보급과 주민 눈높이 생활 밀착형 소방안전복지서비스 시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 국내육성 칼라 품종 품평회

6일 팔봉 김동규 농가에서 무름병에 강한 백색칼라 '실키화이트'와 '몽블랑' 6품종에 대한 품평회가 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과 화훼공판장 경매사, 전북 및 여주의 재배농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이번 평가회에서는 '실키화이트' 품종 등 6품종, 우수계통 '원교 C4-11' 10계통이 소개됐다.

또 배양묘 증식 포장과 1년, 2년차 구근(알뿌리), 개화 구근의 재배 상황 등을 확인하고, 국산 품종과 국내시장에서 인기가 좋은 외국품종 '웨딩마치'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국내 육성품종의 우수성을 확인 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칼라 주산지는 익산과 여주 등으로 수출유망 작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지만 무름병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재배면적이 2002년 26ha에서 2014년 13ha로 급격히 줄었다.

무름병은 걸리면 약제방제가 안되기 때문에 구근 심기전 구근소독과 토양소독, 심고난 후 환경관리 등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화훼 농가에서는 근본적인 병에 강한 품종이 나오길 요구해 왔다

시는 2009년부터 무름병 해결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협업으로 진흥청에서 육성한 조직배양묘 보급 및 몽블랑 등 국내육성 칼라 종구, 토양개량제 지원 등 시범사업을 통해 2012년 시장에 출하해 최고 가격을 받은 이래 2016년 현재 국산 품종 보급률은 9%가 됐다.

국내 육성 품종은 외국 품종에 비해 무름병에 강하고 구근번식력이 좋아 농가에서 선호하며 꽃모양이 예쁘고 꺾은 꽃 수명도 길어 시장의 반응이 좋다. 품종으로는 2008년 육성한 '실키화이트', '몽블랑', 2011년 육성한 '화이트큐티', 2013년 육성한 '화이트하트', '화이트에그' 등이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근대·일반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건축사 모집

군산시는 월명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주거재생 지원과 근대역사경관 회복을 위한 근대·일반건축물 리모델링 보조사업 건축사 풀(pool) 구성을 위한 건축사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리모델링 보조사업 참여 건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근대문화를 대표하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전체적인 경관과 어울리는 리모델링 설계를 위해 추진됐다.

공모과제는 군산시 중앙로1가 10-26, 10-27번지의 월명우수저류조 인근의 건축물에 대해 리모델링 기본설계와 부지내 건물 신축에 대한 기본설계안을 각 1점씩 제출하면 된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사는 공모과제 대상 건축물의 준공년도를 기준으로 원형적 가치를 존중하고, 대상 부지 주변과 도시재생선도지역 전체적인 경관과 조화로운 기본설계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는 질의서 접수와 회신, 제안서 접수를 거쳐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인원은 10명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해경, 도서지역 투표함 수·회송 준비 만전

군산해경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서지역 투표함 수송·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해상경비를 담당하는 군산해경서는 6일 경비함정 3척을 동원, 군산 개야도와 어청도, 연도 등 도내 8개 섬 지역의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수송한다고 밝혔다. 수송에는 지정된 날 여객선을 이용해 연도·개야도·말도 등 8개 도서지역에 수송이 이뤄질 계획으로 기상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경우 해경 경비함정과 헬기를 이용 투표함이 전달된다.

선거일인 13일,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회송에는 경비함정 3척과 행정선 등이 동원될 계획이나, 당일 기상이 악화되면 경비함정을 추가로 투입하고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해양경찰 헬기를 이용해 회송에 나설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선거일을 전·후 해상경계근무를 더욱 강화하고 전 직원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예비 함정의 긴급출항도 준비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